

멤돌다 만 헤롯

Herod Just Hovered Around

마가복음 6:14-29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2월 24일 설교

¹⁴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¹⁵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¹⁶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 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¹⁷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¹⁸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 이라. ¹⁹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²⁰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²¹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 할새 ²²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²³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²⁴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²⁵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²⁶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²⁷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 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²⁸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²⁹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헤롯 가문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의 헤롯은 헤롯 가문의 시조 헤롯 대왕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갓난아기 수십 명을 대학살한 장본인이지요. 이 헤롯은 다섯 왕비로부터 아들 아홉에 딸 다섯을 두었는데 위로 세 아들을 반역죄로 처형하고 왕비도 하나 반역죄로 처형한 참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죽은 뒤 남은 아들 가운데 셋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렸는데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 북동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각각 다스렸습니다. 아켈라오하고 빌립은 성경에 이름만 잠깐 나오는 반면 안디바는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헤롯이 둘 나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립바입니다. 그 손자의 아들도 사도행전 후반부에 아그립바라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헤롯 집안은 사 대에 걸쳐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당시는 로마제국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어서 헤롯 집안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온 가족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핏줄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신앙도 생활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하면서 유대인으로 자처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맡았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나라를 물려받은 세 아들 가운데 하남니다. 셋 가운데 권력을 가장 오래 누리긴 했지만 헤로디아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일그러진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은 여자 하나 때문에 권력을 제대로 못 휘둘러 일그러졌다고 보겠지만 안디바의 인생이 일그러진 진짜 이유는 권력보다 더 소중한 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자 핑계 댈 일은 아니지요. 제 책임입니다.

헤로디아

헤롯 안디바 이야기는 늘 헤로디아라는 여자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친손녀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뒤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지만 아버지하고는 배다른 형제고 또 당시 권력층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헤롯 빌립 일세입니다. 나라를 물려받은 그 빌립이 아닌 다른 빌립인데 이 사람은 한 때 아버지 헤롯의 후계자였지만 아버지가 죽기 며칠 전 반역죄를 뒤집어쓰는 바람에 후계자 자리도 뺏기고 왕도 못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처음 후계자의 부인이었다가 나중에 왕이 못 된 왕족의 부인이 된 셈이지요. 둘 사이에 사랑은 없었지만 딸은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 역

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딸 이름은 살로메였다고 합니다.

빌립이 권력에서 밀린 반면 안디바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갈릴리와 베뢰아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베뢰아와 접해 있던 이웃 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권력을 든든히 하겠다는 거니까 이 역시 사랑 없는 결혼이지요. 그런데 안디바가 불일이 있어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복형인 빌립을 만나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머무는 동안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습니다. 본문에 동생 빌립의 아내라 했는데 형 빌립의 아내입니다. 형수하고 시동생 사이의 불륜인데 둘 다 이상형을 만났다고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자 남편 및 아내와 이혼한 다음 둘이 결혼하기로 비밀리에 약속을 했습니다.

안디바가 갈릴리로 돌아와 왕비 몰래 이혼 준비를 하는 사이 이 왕비가 안디바와 헤로디아 사이의 비밀 약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에게는 시침을 떼고 그냥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 하고는 고향으로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시집 간 딸이 도망을 왔으니 고향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헤롯 안디바도 쫓겨나게 됩니다. 어쨌든 안디바는 홀몸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도 남편 빌립과 이혼을 하고 두 사람은 약속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요한의 비판

왕이나 고위 공직자가 부인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일은 당시 로마에서 유행하던 풍습이었습니다. 로마 첫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도 첫 결혼은 제이차 삼두정치를 같이 했던 안토니우스의 처의 딸과 했습니다. 그러다가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의 힘이 필요해지자 첫 부인하고 이혼하고는 한참 연상인 폼페이우스의 처고모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와중에 안토니우스한테는 제 여동생 옥타비아를 줘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전 장모인 부인하고 이혼하고 옥타비아누스의 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클레오파트라한테 반해 또 옥타비아를 버렸지요. 옥타비아누스도 첫 딸을 낳기 전에 또 다른 여자한테 반해 그 여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다음 제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냥 일부다처제를 하지 철저히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다 보니 당시 로마의 상류사회는 이혼하고 결혼하느라 다들 무척 바빴습니다. 역사를 읽는 우리도 헛갈릴 정도입니다.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도 사실 그런 풍습을 따라한 셈입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형수의 이 결혼을 당시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요한이 비판을 했습니다. 안디바는 유대인이 주로 살던 갈릴리의 왕입니다. 로마 사람들하고 친하긴 했지만 제 입으로 유대인이라 하고 유대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비판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갔으니 간음죄요, 그 다른 사람이 시동생이었으니 근친의 죄도 지었습니다 (레 20:21). 그래서 세례요한이 내놓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안디바는 요한을 당장 감옥에 처넣었습니다. 기분이 나빴겠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헤로디아가 시켰습니다. “이 여자를 위하여” 했으니 헤로디아가 부탁해 감옥에 넣은 겁니다. 헤로디아는 처음 요한을 죽이자 했습니다. 안디바와 헤로디아 사이의 불륜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오래 전 거의 다 이루었던 왕비의 꿈이 물거품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디바와 재혼해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는데 요한이 그걸 비판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요한하고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듣기만 하고

죽여 버리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됩니다. 난 왕이 아니고 왕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안디바는 요한이 무서웠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을 죽였다가 무슨 난리가 날지 모릅니다 (마 14:5). 게다가 안디바 제가 보기에요 요한은 좋은 사람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감히 해치겠습니까? 그런 사람 죽이라고 내가 권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죽이라는 요청도 거절했지만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해코지를 못 하게 막아 주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죽이지 못한 두 번째 이유, 어쩌면 진짜 이유는, 요한의 말 듣는 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변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안디바는 요한의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왕궁으로 부르거나 직접 옥으로 찾아가지는 않았겠지요. “요한이 어찌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요한이 임금님이 죄를 지으셨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얼른 회개하셔야 된다 합니다.” “그래? 거 참....”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을 겁니다. 요한은 형수하고 결혼한 죄 말고 다른 죄도 다 책망했습니다 (눅 3:19).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다 꼬집으니 괴롭지요. 하지만 맞는데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군가 그걸 지적해 주거나 아니면 제 입으로 자백해야 시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루소가 고백록을 쓴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 효과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줄 모두가 뻔히 아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괜찮습니다, 임금님이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됩니다” 그런다면 이 놈 사기꾼이구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기꾼 하나쯤 쉽게 죽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죽는 걸 두려워 않고 그건 죄요, 회개하시요,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섭지요. 게다가 말씀도 웁습니다. 괴로우면서도 웬지 기분이 좋습니다. 카타르시스지요.

안디바가 놓친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안디바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살아서 (마 11:8)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걸 계기로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직접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즐겁게 들었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라면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죽여 버리든지 그게 아니라 참 선지자라면 얼른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지 말은 즐겨 들으면서도 마음에는 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뼈아픈 실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헤롯 안디바는 어느 날 뼈아픈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혀를 잘못 놀렸습니다. 제 생일날 고관대작들을 왕궁으로 불러 성대한 잔치를 열었는데 아내 헤로디아가 전 남편에게서 얻은 딸을 불러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어떤 춤을 얼마나 요란하게 추었는지 모르지만 헤롯이 그 춤에 넋이 나가더니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걸로도 모자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전에 헤로디아에 반했을 때도 그랬겠지요. 이번에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렇게 폭 빠져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뭐든지 주겠다 하는 말로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다 하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했으니 제 권한에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춤은 헤로디아가 꾸민 작전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좀 좋다 싶으면 금방 넘어가버리는 어리송한 사람인 줄 알고 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딸은 왕이 소원을 말하라 하자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 물었습니다. 안디바가 헤로디아의 꾀에 넘어간 거지요.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죽이라고 그렇게 즐겼는데도 안 죽이고 버티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으니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로디아는 원수 세례요한을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안디바는 안디바대로 의로운 선지자를 무참히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눅 3:20).

소식을 듣고도

요한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요한이 살았을 때는 혹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라도 있었을 터인데 혀를 잘못 놀리는 바람에 제 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디바에게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선구자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유능한 선지자라 하기도 했습니다만 헤롯 안디바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세례요한이 되살아났다 했습니다. 안디바가 무슨 윤희를 믿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습니까? 둘 다 아니지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죽이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으면, 그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바는 두 번째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도 듣기만 하고 말더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도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는 끝나 버렸습니다. 그 분이 전하신 생명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다시 살아났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하면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아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회개하고 믿어 구원 얻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눅 9:9). 그런데 실행은 못 했습니다. 무서웠겠지요. 만약 세례요한이 되살아났다면 서슬이 시퍼런 그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게다가 헤로디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만약 세례요한이라면 내 죄를 또 꾸짖을 거고 그러면 헤로디아가 또 죽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도 무섭고 재혼한 아내도 무섭고 그래서 직접 볼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직접 만나고도

요한이 회개하라 외칠 때 회개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만
들지 못한 헤롯 안디바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혀 심문을 받으실 때 헤롯
안디바가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끌고 왔을 때 직접 심문하는 대신 일단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눅 23:6-12). 예수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마침 갈릴리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 잘 뵈었다 싶었습니다.
빌라도도 정치꾼 아닙니까?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겨 버린 겁니다.

헤롯 안디바는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싶었지만 차마 실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 발로 걸어온다 하니 얼마나 좋았겠
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고 반가워한 이유가 또 빛나갔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 눈앞에서 기
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서 예수를 반가워한 겁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그에게 하나
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안디바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이 그저 기적이냐 한 번
보았으면 했습니다. 기적 봐서 뭐 하려고요? 남들은 멀리서 소문만 듣고도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구세주를 눈앞에 두고
서도, 대화까지 나누고서도, 영원으로 가는 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회마저 걸어찬 헤롯 안디바는 씻지 못할 죄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예수께 아무리 물어도 예수께서는 기
적은커녕 말씀도 한 마디 안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온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큰 죄를 지었다고 계속 고소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구세주를 지금 죄인이라 고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제 죄를 알았다더라면, 예수 그리스
도가 구세주이신 줄 알았다더라면, 그 사람들을 꾸중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겠지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오히려 그
리스도를 죄인으로 비난하는 무리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곁에 있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는 빌라도에게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헤롯 안디바
도 빌라도 편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눅 23:12).

안타까운 삶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러나 오직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
고 그 분께 내 삶을 드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은 대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눅
13:24-27). 주님, 저희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셨지요? 제가 그 때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하고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까? 헤롯 안디바도 그렇게 말하겠지요. 주님, 제가 세례요한의 꾸중을 달게 들은 사람입니다. 헤로디아가 죽이
자 하는 것도 계속 반대했고, 나중에 헤로디아의 꾀에 넘어가 죽이긴 했지만 세례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 때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야, 나를 떠나 가라.

헤롯의 생애는 권력과 정욕 두 가지로 간단히 압축됩니다. 왕이 되어 오랜 세월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그
런데 나만큼 권력을 좋아하던 헤로디아와 불륜으로 맺어지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로디아의 증오심
과 내 경솔함이 뒤엉켜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요한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살인, 간음, 그보다 더 큰 죄를 지
었다 하더라도 세례요한이 전해준 그 분, 비범한 능력을 가지셨다 소문이 난 그 분, 나중에는 직접 만나 뵈기까지 한 그
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만 했더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을 터인데 그렇게 좋은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말았으니 그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안타까움이 더 커집니다. 헤롯 주변 사람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며 돕던 여인
가운데 요안나가 있는데 요안나는 헤롯 왕궁에서 일하던 관리의 부인이었습니다 (눅 8:3). 신하의 부인은 진작 예수를 믿
었는데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졌던 헤롯은 못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좋은 본을 보여준 안디옥 교회에 성경을 가
르치는 교사가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행 13:1). 젖동생은 어렸을 때 함께 자란
사람 또는 어린 시절의 친구를 가리킵니다. 같이 자란 마나엔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까지 되었는데
헤롯은 이 땅의 권력과 정욕에 취해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어둠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복 받은 사람

헤롯 안디바 이야기를 들으며 남 이야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땅의 것에 바빠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 바쁘지요. 그렇지만 헤롯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해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고 존재감도 피력하면서 살면 기분 좋지요. 그런 다음 우리 호흡이 멎을 그 때는 어디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품 잡고 산다 한들 헤롯 안디바 근처나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안디바였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반드시 얻어야 할 진리 그 한 가지는 못 얻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진리 주변을 맴돌다 만 사람입니다. 영원으로 가는 문 앞으로 몇 번이나 지나갔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주변의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어 영원히 사는 복을 누렸습니다. 나는 헤롯입니까, 아니면 헤롯 주변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평평거린 다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가진 것 누린 것 별로 없어도 구원과 영생은 얻은 복된 사람입니까? 기회는 끝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오늘 헤롯에게 배웁니다. 내 영원의 운명이 달린 교훈입니다. (권수경 목사)